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소외된 이웃에 성금 200만원 기탁

성낙성 기자 jeb08585@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4.12.19 20:25



↑↑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이돈문 지사장(오른쪽)이 이웃돕기 성금을 이병환 (왼쪽)성주군수에게 전달했다.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8일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금 200만원을 성주군에 전달했다. 성주군은 전달받은 기부금을 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을 소중하게 사용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돈문 성주지사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직원들과 함께 이번 기부금 기탁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